Violin Concerto in D minor, Op. 47

- □□

정보

Jean Sibelius: *Violin Concerto in D minor, Op. 47*

- 작곡가 : Jean Sibelius (1865–1957)
- 작품명 : *Violin Concerto in D minor, Op. 47*
- 작곡 시기 : 1903–04년 , 1905년 개정
- **1904**년판 초연 : 1904년 2월 8일 , Helsinki University festival hall, Viktor Nováček 독주 , Jean Sibelius 지휘 , Helsinki Philharmonic Society Orchestra
- **1905**년판 초연 : 1905년 10월 19일 , Berlin Singakademie, Karel Halíř 독주 , Richard Strauss 지휘 , 왕립 프로이센 궁정악단
- 최종 헌정 : Franz von Vecsey(1910년 말 결정)
- 초판 : 1905년 , Berlin-Lichterfelde의 Schlesinger’sche Buch- und Musikhandlung (Rob. Lienau)
- **IMSLP**: https://imslp.org/wiki/Violin_Concerto,_Op.47_(Sibelius,_Jean)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Violin_Concerto_(Sibelius)

Jean Sibelius의 *Violin Concerto in D minor, Op. 47*은 독주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이며 , 여기서는 널리 연주되는 1905년 최종판을 중심으로 1904년판까지 포함한 전곡을 다룬다 . 작품은 `Allegro moderato`, `Adagio di molto`, `Allegro ma non tanto`의 세 악장으로 이어진다 .

개요

초연 세 차례 뒤에 철회된 1904년판

Sibelius는 1890년대 말부터 바이올린 협주곡을 구상했지만 , 작품의 본체를 쓴 시기는 1903년 여름부터 이듬해 1월까지다 . 1903년 가을에는 독일 바이올리니스트 Willy Burmester에게 새 협주곡과 헌정을 약속했다 . 그러나 Burmester가 Helsinki에 올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1904년 2월 공연을 잡았고 , Helsinki 음악원에서 가르치던 Viktor Nováček이 독주를 맡았다 . Sibelius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3악장의 관현악화를 손질한 뒤 직접 지휘대에 올랐다 .

1904년판은 2월 8일 Helsinki University의 축제 홀에서 초연되었고 10일과 14일에도 다시 연주되었다 . Nováček은 까다로운 독주부를 암보로 연주했으며 , 제 2악장은 청중의 요구로 한 번 더 들려주었다 . 이

사실들은 초연을 ‘연주 불가능한 작품이 빚은 참패 ’로 요약하기 어렵게 한다. 비평가 Oskar Merikanto는 작품을 강하게 지지한 반면 Karl Flodin은 형식과 독주부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평가의 방향은 갈렸지만, 독주부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은 여러 평에 공통으로 나타났다.

Sibelius는 6월 3일 후원자 Axel Carpelan에게 협주곡을 철회하고 제 1악장을 고치겠다고 알렸다. 실제
개정은 1905년 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외악장의 기교를 덜고 전체 길이를 줄였지만, 손에 부담을 주는 음을 삭제하는 데 그치지는 않았다. 제 1악장의 제 2주제 구역과 카덴차의 위치, 독주 선율에 맞서는 관현악 성부를 다시 쓰면서 음악의 진행 방식까지 바꾸었다.

Berlin 초연과 뒤늦게 정해진 헌정
최종판은 1905년 10월 19일 Berlin Singakademie에서 처음 연주되었다 . Karel Halíř가 독주했고 Richard Strauss가 왕립 프로이센 궁정악단을 지휘했다. 이 악단은 오늘날 Staatskapelle Berlin으로 이어지는 단체다 . 일부 후대 자료는 Berlin Philharmonic이라고 적지만, 원출판사 계열의 기록과 Berlin 음악기관 자료는 궁정악단으로 일치한다. 당시 이 악단의 악장이었던 Halíř가 독주를 맡았다는 경력과도 맞아떨어진다 .

Burmester는 1904년판에 이어 최종판의 초연도 맡지 못했고, 끝내 이 협주곡을 공개 연주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최종판이 1905년에 곧바로 다른 바이올리니스트에게 헌정된 것은 아니다. Sibelius는 1910년 말 Berlin에서 열일곱 살 Franz von Vecsey의 연주를 들은 뒤 그에게 작품을 바치기로 정했다. 처음 연주를
약속받은 사람, 두 판의 실제 초연자, 최종 헌정자가 모두 다르므로 이들의 역할과 시기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출판 정보와 자료

1905년 최종판은 Berlin-Lichterfelde의 Schlesinger’sche Buch- und Musikhandlung, 곧 Robert Lienau 출판사에서 나왔다. 관련 초판 자료의 판번호는 한 가지가 아니다. 관현악 총보 교정쇄에는 S.9936, 독주
바이올린 파트와 바이올린 ·피아노판에는 S.9336이 매겨졌다. 현재 유통되는 Ossip Schnirlin 편집판은 1920 년대 말 이후 활쓰기와 운지, 빠르기 표시를 많이 보탠 실용판이다 . Sibelius가 그 추가 사항을 구체적으로
승인했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작곡가가 확정한 본문과 후대 연주자의 표시를 구분해야 한다.

최종판의 자필 관현악 총보는 거의 전하지 않는다. 독주 바이올린 성부가 없는 약 38마디의 단편만 남았고, 편집의 중심이 되는 자료는 August Österberg가 작성한 143쪽의 출판용 필사 총보다. Sibelius는 이
필사본을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고치고, 빠진 카덴차 한 마디도 직접 써넣었다. 독주 파트와 바이올린 ·
피아노판의 필사본 및 교정쇄에도 그의 수정이 남아 있다.

출판 과정의 다른 단계도 비교할 수 있다. Paul Juon이 검토한 관현악 총보 초교와 Richard Strauss가 1905 년 초연을 준비하며 표시한 두 번째 교정쇄, 지휘에 사용한 자료가 함께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이 Lienau 계열 자료들은 2016년 경매에 나왔다가 2020년 핀란드 국립도서관에 들어갔다. 자필 총보가 사라졌더라도
필사자의 오류, 출판사 교정, 작곡가의 마지막 수정을 서로 대조할 수 있는 까닭이다.

Timo Virtanen이 편집한 Jean Sibelius Works Series II/1은 2014년 12월 15일 출판되었다 . 핀란드
국립도서관 , Sibelius Museum, Ainola, Lienau 출판사와 개인 소장처에 흩어진 스무 건 이상의 음악 자료와 스케치를 대조한 비평판이며 , 1904년 관현악판을 처음 인쇄해 최종판과 한 권에 실었다. 2015년에는 Lienau 가 이 판에 바탕을 둔 1904년판의 연주용 총보와 파트를 내놓았다. Sibelius가 1930년대에 관현악을 더
손보려 했던 흔적도 조사되었지만 , 그 변경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제 3판으로 볼 수 없다.

1904년판과 1905년판에서 달라진 것

1904년판은 초연 전에 버린 초고가 아니라 Sibelius가 관현악화를 마치고 세 차례 지휘한 완결판이다 . 관현악 자필 총보도 Helsinki에 남아 있다. 후대의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초기 관현악판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사라진 바이올린 ·피아노 악보다. 1991년 최초 녹음을 준비할 때 Kalevi Aho가 제 1악장 피아노 파트의 결손을 채웠고, 2017년 비평판은 남은 단편의 팩시밀리와 복원을 함께 제시했다.

두 관현악판의 차이는 제 1악장에서 가장 크다. 1904년판의 542마디가 최종판에서는 499마디로 줄었다. Sibelius는 제 2주제로 향하는 구역에서 Mendelssohn을 떠올리게 하는 에피소드와 뒤쪽의 큰 추가 카덴차를
걷어 냈다. 대신 제 2주제 아래에 다른 박동으로 움직이는 관현악 대선율을 보강했다. 1904년판에서 독주
기교의 긴 구간들이 차례로 놓였다면, 최종판에서는 바이올린과 관현악이 서로 다른 리듬을 유지한 채 하나의
긴 정점을 만든다.

제 2악장은 두 판 사이에서 가장 적게 바뀌었다. 종결로 가는 몇몇 독주적 우회가 정리되었지만 , 목관 서주와 넓은 바이올린 선율, 가운데의 고조라는 뼈대는 유지되었다 . 제 3악장에서는 약 2분 길이의 연결 구역이 빠지고 외악장 전반의 손 부담도 줄었다. 그 결과 1904년판은 최종판보다 약 6분 길고 독주부의 굴곡도 더 거칠다. 최종판은 기교를 포기한 축약본이 아니라, 관현악의 발언을 강화하고 재료가 돌아오는 시점을 조정하여 더 짧은 시간 안에 긴장을 모으는 별도의 완결판이다 .

Leonidas Kavakos는 두 판을 모두 녹음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 The Strad 마스터클래스에서 차이를 설명했다. 그가 보기에 1904년판에서는 복잡한 독주부와 비교적 단순한 관현악이 바이올린의 기교를 위해 움직이지만 , 최종판에서는 관현악이 독주자와 거의 대등한 상대가 되어 음악적 생각을 함께 밀어 간다. 판본을 비교할 때 음표 수만 세기보다 독주와 합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요 시간

1905년 최종판은 대체로 약 32분이 걸린다. 악장별로는 제 1악장 약 1517분, 제 2악장 약 810분, 제 3악장 약 7~8분이다. 연주 속도에 따라 30분 안팎부터 35분 가까이까지 벌어지며, Jascha Heifetz와 Thomas Beecham이 1935년에 남긴 약 28분의 녹음은 빠른 역사적 예외에 속한다.

1904년판은 약 38~40분이 필요하다. 제 1악장만 약 20분에 이르고, 제 3악장도 약 10분이 걸린다. 두 판의 시간 차이는 주로 제 1악장에서 삭제된 에피소드와 추가 카덴차, 제 3악장에서 빠진 긴 연결 구역에서 생긴다. 따라서 1904년판을 들을 때에는 최종판의 느린 연주라고 생각하기보다 , 다른 형식적 경로를 지닌 판본으로 시간을 따라가야 한다.

편성

독주: Solo-Violine
목관악기 : 2 Flöten, 2 Oboen, 2 Klarinetten, 2 Fagotte
금관악기 : 4 Hörner, 2 Trompeten, 3 Posaunen
타악기: Pauken
현악기: Violinen I·II, Bratschen, Violoncelli, Kontrabässe

1904년판과 1905년판은 같은 편성을 사용한다. 피콜로, 잉글리시 호른, 베이스 클라리넷, 하프, 튜바, 팀파니 이외의 타악기는 없다. 독주 바이올린이 약음기를 낀 현악의 여린 떨림 위에서 시작하는 첫머리와 세 대의 트롬본까지 가세하는 구조적 절정의 거리가 멀어서, 편성표의 크기보다 실제 악기 투입의 대비가 더
두드러진다 .

Sibelius는 1943년 사위이자 지휘자 Jussi Jalas에게 이 협주곡의 관현악을 교향곡처럼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930년에는 반주가 너무 무겁다며 더 고치고 싶다고 출판사에 털어놓았다 . 관현악을 소극적인 배경으로 낮추면 최종판의 대선율과 전환이 사라지고, 반대로 금관과 저현을 계속 밀어붙이면 독주가 묻힌다.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두 발언은 이 곡의 합주가 해결해야 할 범위를 정확히 가리킨다.

악장별 구성과 듣기의 초점

I. Allegro moderato (D minor)

약음기를 낀 현악이 높은 음역에서 가늘게 떨리는 동안 독주 바이올린이 D단조의 첫 선율을 홀로 시작한다. 선율은 박자의 첫머리를 또렷이 찍기보다 중간에서 솟아오르듯 들어오며, 짧은 음형을 되풀이하다 넓은
도약과 아래 방향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관현악이 같은 주제를 큰 음량으로 되받으면 개인적인 발화로 들렸던 선율이 악장 전체를 움직이는 재료로 바뀐다.

악장은 소나타 형식의 큰 틀을 따르지만, 독주 협주곡의 관습을 한 곳에서 크게 바꾼다. 제시부가 여러 주제를 지나 관현악의 강한 종결에 이른 뒤, 독주 바이올린이 홀로 긴 카덴차를 시작한다. 보통 협주곡의 카덴차가
재현부 뒤에서 기교를 집약한다면 , 여기서는 중앙의 카덴차가 발전부를 대신한다. 첫 주제의 조각과 겹음, 아르페지오가 독주 악기 안에서 분해되고 다시 조립된 뒤에야 관현악과 재현부가 돌아온다. 카덴차를 본문
밖의 장식처럼 끌고 가면 악장의 중간이 멈추고, 앞서 나온 주제를 계속 변형하는 과정으로 들려주면 긴 형식이 이어진다.

제 2주제의 귀환도 단순한 복사가 아니다. 제시부에서는 D-flat major의 6/4박자 선율에 관현악의 네 박 대선율이 맞서며 두 박동이 겹친다. 재현부에서는 대응하는 주제가 D major와 2/2박자로 돌아오고, 기보된 두 마디가 앞선 한 마디에 해당하도록 음가가 늘어난다. 음악이 느슨해진 것이 아니라 바탕 박동은 유지하면서
선율의 시간이 넓어진 셈이다. Daphne Leong이 2025년 연구에서 일곱 연주를 비교했을 때에도 한 사례를 제외하면 재현부의 이 주제가 제시부보다 더 넓게 흘렀다. D-flat에서 D로 반음 올라가며 바이올린의 열린 현 공명에 가까워지는 조성 변화도 귀환의 밝기를 더한다.

1904년판에는 이 구역 뒤에 Bach를 떠올리게 하는 큰 추가 카덴차가 있었다. Lisa Batiashvili는 2021년 WHRB 인터뷰에서 초기판을 듣고 공부한 뒤, 최종판에서 사라진 이 카덴차를 특히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삭제를 단순한 손실로 볼 수는 없다. Sibelius는 긴 독주 구간을 덜어 낸 자리에 관현악 대선율과
박자 충돌을 집중시켜, 재현부까지의 방향을 더 짧고 팽팽하게 만들었다.

II. Adagio di molto (B-flat major)

두 대의 클라리넷이 3도 병행의 짧은 동기를 내고 오보에가 더 높은 음역에서 이어받은 뒤, 독주 바이올린이 피치카토 현악 위로 넓은 주제를 노래한다. 첫 악장의 카덴차처럼 혼자 구조를 끌고 가기보다, 목관이 마련한 호흡을 이어받아 긴 음과 짧은 장식을 한 문장 안에 묶는다. 관현악이 선율을 키우고 바이올린이 더 높은 음역으로 올라가면서 , 처음의 고요한 주제는 겹음과 강한 불협화음을 포함한 중앙의 고조로 바뀐다.

Kavakos는 같은 마스터클래스에서 연습번호 2의 겹음을 화음 덩어리로 잡지 않고 두 성부의 폴리포니로 나누었다. 아래 성부의 셋잇단음표에서는 매번 두 번째 음을 또렷이 하여 그 움직임이 연습번호 3의 코랄과 절정으로 이어지게 했다. 처음 나오는 짧은 음이 관현악의 B-flat 화음과 부딪히고 두 번째 음에서 긴장이
풀리는 과정을 살리려는 선택이다. 뒤이어 관현악의 옥타브가 중심을 맡을 때에는 바이올린의 비중을 낮추어, 독주가 계속 앞에 서는 대신 합주 안에서 역할을 넘긴다.

이 악장은 1904년판과 최종판의 공통점을 가장 많이 보존한다. Sibelius가 몇몇 기교적 우회를 덜어 냈어도
목관 서주, 독주 주제, 중앙의 고조와 조용한 귀환이라는 흐름은 남았다. 그래서 두 판을 비교하면 개정의
목적이 모든 악장을 짧고 쉽게 만드는 데 있지 않았음이 분명해진다 . 이미 독주와 관현악의 호흡이 맞았던 완서악장은 지키고, 관계가 느슨했던 외악장을 집중적으로 다시 쓴 것이다.

III. Allegro ma non tanto (D major)

팀파니와 저현이 긴 음 하나와 짧은 음 두 개로 이루어진 박동을 되풀이하고 , 그 위로 독주 바이올린이 겹음
주제를 힘차게 꺼낸다. 이 다크틸 리듬은 첫 주제의 배경에 머물지 않고 악장 곳곳의 강세와 반주를 묶는다. 론도의 주제 귀환과 소나타 형식의 대조 ·전개가 섞인 가운데, 독주부에는 올림활 스타카토, 빠른 현 이동,
겹음과 옥타브가 잇달아 놓인다. 기교의 종류는 계속 바뀌지만 낮은 악기들이 고정하는 박동이 전체를 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높은 음과 도약만 좇으면 이 박동이 약해지기 쉽다. Kavakos는 연습번호 3에서 열 마디 지난 구간을 설명하며, 도착하는 높은 음보다 매 마디 첫 박을 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Sibelius가 각 첫 박에 forte 를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연습번호 10에서 12로 향하는 구간에서는 속도를 조금씩 밀어 올려 옥타브 절정에
도달하게 했다. 큰 음량의 관현악과 넓은 도약이 만나는 곳에서 박동을 유지한 채 가속해야, 어려운 음표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의 상승으로 들린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의 독주 아르페지오는 앞선 겹음과 옥타브에 비하면 손에 잘 놓이는 편이고, 관현악의 세 화음 위에서
높은 D에 도달한다. 결말의 효과는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기교를 배치해서 생기지 않는다. 줄곧 누적한 리듬과 음향이 간결한 화음으로 모이는 데서 나온다. 1904년판의 긴 연결 구역을 삭제한 선택도 이 직접적인 종결과 관련된다.

악보를 새로 읽는 일과 합주

Batiashvili는 2021년 Boston Symphony Orchestra와의 공연을 앞두고, 유명한 협주곡일수록 표시 없는 새 악보에서 준비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전 공연의 활쓰기와 운지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손의 상태와 동료에 맞추어 자주 바꾼다는 것이다. 그는 1995년 Sibelius Competition 결선에서 처음 이 곡을 관현악과 맞췄을 때 , 독주부를 연주하는 일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변의 모든 성부를 들어야 했다고도 회고했다.

이 준비법은 최종판의 성격과 맞닿아 있다. 제 1악장 제 2주제에서 바이올린은 관현악과 다른 박동을 연주하고, 제 2악장에서는 겹음의 아래 성부와 관현악 옥타브 사이의 비중을 바꾸며, 피날레에서는 팀파니와 저현의 박동 위에 복잡한 활쓰기를 얹는다. 운지와 활쓰기는 독주자가 편하게 음을 잇는 표시만이 아니라, 어느 성부를 듣고 어느 박동을 합주에 건넬지 정하는 수단이다. 익숙한 판본을 새 종이에서 다시 읽는 일은 해석을 새롭게 보이게 하는 연출이 아니라, 매번 달라지는 관현악과의 접점을 실제 동작으로 고치는 절차다.

초연의 논쟁에서 핵심 레퍼토리로

초기 수용사를 ‘실패 뒤 개정과 성공 ’이라는 한 줄로 정리하면 작품이 바뀐 이유도, 1904년 Helsinki 청중이 들은 음악도 흐려진다. 세 차례 공연과 제 2악장의 반복, 상반된 비평은 첫 판이 이미 청중을 움직였음을 말한다 . 동시에 독주부의 난도에 비판이 모였고 Sibelius 자신도 형식에 만족하지 못했으므로 , 철회는 외부의 혹평에 굴복한 사건보다 무대에서 확인한 문제를 다시 작곡한 결정으로 보는 편이 사실에 가깝다.

작품의 국제적 정착은 녹음사에서도 뚜렷하다. Jascha Heifetz는 Thomas Beecham이 지휘한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와 1935년 11월 26일 Abbey Road Studio 1에서 최종판을 녹음했다. 확인되는 첫 상업 전곡 녹음으로, 약 28분의 빠른 진행과 선명한 독주가 이후 거장 바이올리니스트의 핵심 레퍼토리로
작품을 자리 잡게 한 기준점이 되었다. 1943년에는 Anja Ignatius가 Armas Järnefelt 지휘로 녹음을 남겼다. 핀란드 바이올리니스트의 첫 기록이며, Sibelius가 Ignatius와 자신의 처남 Järnefelt의 조합을 직접
제안했다는 점에서 작곡가 생전의 연주 전통을 잇는다.

1904년판은 철회 뒤 오랫동안 일반 공연과 출판에서 사라졌다. 유족은 Leonidas Kavakos에게 한 차례의
녹음을 특별히 허가했고, 그는 Osmo Vänskä가 지휘한 Lahti Symphony Orchestra와 1991년 초기판 및 최종판을 한 음반에 담았다. 이 녹음은 1904년판을 세계에 처음 소리로 공개했고 그해 Gramophone 협주곡 부문을 받았다. 같은 독주자와 악단이 동일한 시기에 두 판을 연주했기 때문에, 연주자의 개성 차이보다 Sibelius가 삭제하고 새로 쓴 부분을 곧바로 비교할 수 있다. 2014년 비평판과 2015년 연주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이 음반은 두 판의 관계를 들을 수 있는 드문 통로이기도 했다.

주요 자료

Finnish National Library, Jean Sibelius Works 출판 목록
Finnish National Library, JSW Series II/1 보도자료
Breitkopf & Härtel, JSW Series II/1
Schott/Robert Lienau, 1904년판 연주 자료
Schott/Robert Lienau, 1905년판 작품 자료
Sotheby’s, Lienau 계열 원자료 묶음
Helsinki Philharmonic Orchestra, 1904년 초연과 비평 University of the Arts Helsinki, 작품사와 헌정
Daphne Leong, 두 판본과 제 1악장의 박자 ·연주 연구 Leonidas Kavakos, The Strad 마스터클래스
Lisa Batiashvili, WHRB 인터뷰
Naxos Historical, Heifetz·Beecham의 1935년 녹음
Lahti Symphony Orchestra, Kavakos·Vänskä의 두 판본 녹음 Gramophone, Kavakos의 1991년 녹음과 수상